

부정확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

01

A 방송사, B 방송사는 이혼 소송 중인 신청인이 사람을 고용하여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청부살인을 시도한 바가 없고 소송 중인 사안에 관해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A 방송사와 B 방송사는 각각 조정대상 보도가 판결문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각 조정대상 보도가 이혼 소송 1심 및 2심 판결문 등에 기반하였으나 판결문에는 신청인이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어떤 이의 진술 및 주장이 있을 뿐 신청인이 살인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보도라는 점 등을 들어 A 방송사에는 반론보도와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 B 방송사에는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금 300만 원 지급의 내용으로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방송사 A와 신청인은 동의하여 결정이 최종 확정됐으며, 방송사 B는 반론 및 사과보도를 방송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사건이 취하되었다.

왜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성명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02

C 방송사는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켜 아이의 이마에 멍이 들었으며 학부모에게 “훈육은 해도 체벌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아이들에게 박치기를 시킨 바 없고, 메시지는 박치기 논란 사건이 발생하기 약 6개월 전 메시지라며 정보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C 방송사는 조정대상 보도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보도였고, 신청인의 실명을 노출한 실수는 인정하나 박치기를 시킨 것은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해당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점, 아이의 멍이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피신청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메시지는 박치기 논란 사건과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이번 박치기 논란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해명하는 듯 편집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촬영·보도한  
방송, 기사수정 및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직권조정결정

03

D 방송사는 신청인이 현 옷을 명품으로 속여 비싸게 팔고, 이웃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며, 돈을 달라는 이웃에게 쇠막대기로 위협하거나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취재나 방송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와 같이 보도되었다며 정보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D 방송사는 유사 피해를 막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제작하였고, 제보자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확인 취재하였으며, 신청인에게 기획 의도를 설명한 후 촬영 및 방송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D 방송사가 신청인의 초상 사용에 대해 제대로 동의를 얻지 못했고, 신청인의 초상 및 일터를 방송할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방송사 홈페이지의 예고문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공감블로그 속 『△건론△사람』 6월호 100자평



김석준 님

[인터뷰] 지면에서 한국여기자협회장의 “여기자, 남기자가 있지만 취재영역과 취재기사에는 남녀구분이 없다”는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편견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 님

[언론법 이모저모] <혐오표현> 글과 같이,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관용의 정신은 설 자리를 잃고 혐오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증오의 잣대질 대신 포용의 포용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선아 님

[여행수첩] 인도 콜카타 여행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식도락이나 관광 여행이 아닌, 봉사과 나눔을 실천하는 보람된 여행이라 더 눈길이 갔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건론△사람』 7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7월 20일(수)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트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